

武梁祠畫像石과

檀君神話에 대한 再考

金 元 龍

보려는 것이다.

뒤에서 보듯이 내가 反對하는 것은 硯齋교수의 解釋이고 其他의 場面들이 檀君神話와 符合된다고 한 金博士의 意思에 대해서는 全히 同感인 것이다. 그러나 結果的으로는 金博士의 著書 全部를 批判 否認하는 것처럼 받아 들이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이며 이 小文의 眞意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그리고 이 小文을 草함에 있어 金博士의 學說의 內容을 더 正確히 알기 위해 直接 몇가지 點에 대해서 意思를 交換하고 敎示를 받았으며 여기서 아울러 感謝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二

問題의 場面은 武梁祠(山東省嘉祥縣)의 後石室 第二石과 第三石에 나오는 第二石의 맨 윗 段은 구름을 탄 龍과 神의 行列이고(圖一) 그 아래 面은 金石索의 解釋에 依하면 구름을 탄 東王公, 西王母, 三珠樹를 가진 侍者圖이고 第三石(圖二)은 四段으로 나뉘되 第一段은 三龍駕의 神人, 第二段은 雷雨神, 第三段은 異人奇樹이며 正體不明, 第四段은 田獵拔樹이다.

問題는 이 第三石의 第三段의 「異人奇獸 名不可曉」라고 한 場面이며 金石索의 著者(劉雲鵬兄弟)들은 그것은 山海經에서 由來한 怪異不可思議라고 한 것이다. 그 場面(圖三)은 四肢와 머리위에 各各 武器를 가진

출구는 곰과 그와 마주 선 虎頭人身의 怪物이 小兒의 한팔을 쥐고 그의 발한쪽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이다. 이 虎人에 대해서 金石索은 「持小兒 手方食其足」即 어린아이의 발쪽부터 물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硯齋교수는 이것을 「食兒」가 아니고 「生兒」라고 본 것이다①. 그 理由는 殷代 或은 殷末周初의 銅器중에 饕餮 또는 虎의 입에 물려 있는 人面蛇身(이것은 最初의 人間이며 亦是 人面蛇身인 伏羲女媧와 通함)이 있고 어떤 경우는 饕餮이 올빼미를 물

金載元博士는 『檀君神話의 新研究』(一九四六年 正音社, 一九七六年 再版 探求堂)에서 武梁祠의 畫像石중 後室 第二·三石의 內容이 檀君神話와 八·九分 一致한다고 指摘하여 學界에 큰 反響을 일으켰다. 이러한 金博士의 學說의 出發點은 後說하다시피 畫像石 場面中 出주는 곰과 그 앞에서 어린아이를 손에 잡고 方今 먹으려는 듯한 호랑이(虎頭人身)(圖一)의 場面이 實은 食人이 아니라 生人 即 호랑이가 사람을 낚는 것이라고 보는 데서였다. 그리고 金博士가 그 著書에서 明白히 하고 있드시 그것을 그렇게 본 것은 金博士의 스승이던 硯齋교수였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 第二·三石의 畫像石 內容이 檀君神話의 內容과 같다는 것을 發見한 것이 金博士의 業績이었다.

그러나 이 「虎生人」場面은 「虎食人」이라는 見解를 完全히 물리칠 完璧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것 같아 가지지 않는 一抹의 疑問이 인제나 남아 있다. 또 金博士의 說을 引用함에 있어 金博士의 眞意를 잘못 알거나 速斷해서 우리의 檀君神話가 山東省에 있고 따라서 山東省도 檀君神話圈이오 換言하면 山東省까지도 古代韓族의 領土였다고 생각하는 傾向이 있어 이機會에 金博士의 學說을 다시 한번 되살펴보고 한 두 가지 世資料에 依해 硯齋교수의 「虎生人」解釋에 대한 妥當性 與否를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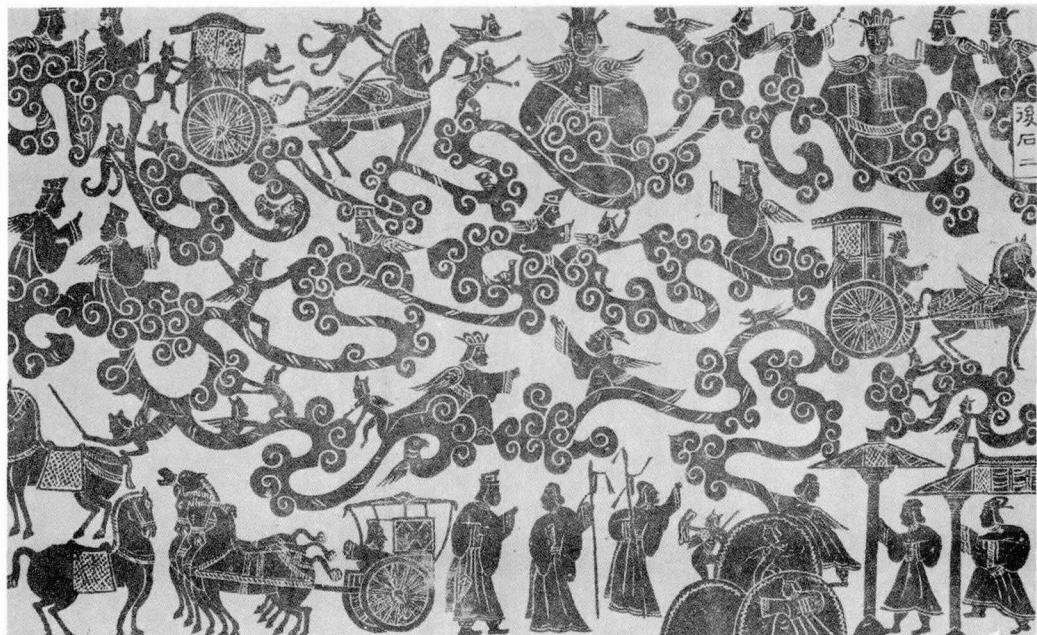


圖 1 武梁祠 後石室 第二石 第二層



圖 2 武梁祠 後石室 第三石

고 그 올빼미 아래쪽에 人面이 나타나고 또 一例에서는 虎口에 人面이 물려 있고 그 아래쪽에 鷹이 나타나 있는데 올빼미는 暗黑的의 象徴이어서 暗黑에서 光明 즉 生命이 誕生하는 것이고 結論적으로 殷代에는 虎나 饕餮의 입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信仰 또는 思想이 퍼져 있었고 武氏祠의 虎人도 그러한 殷傳統의 再現이며 거기 곰과 虎人 가운데 아래쪽에 上記한 殷銅器에 나온 鷹이 나타나 있는 것도 做證의 하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硯齋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바로 그 「生人」場面 뿐이었고 그 以外의 內容에 대해서는 전혀 言及하거나 다치지 않았는데 거기에 着眼한 것이 金博士이고 비록 虎와 熊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熊 虎가 人間創造에 參與하고 있다는 點에서 畫像石의 餘他 場面을 檢討한 결과 그것이 檀君神話와 「八·九分」合致하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즉 그는 第二石 上段의 東王公、西王母는 桓因、三珠樹는 天符三印、第三石의 第一段이 桓雄、그 밑의 雷雨等 場面이 風伯雨師等 人間三百六十餘事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무를 뽑는 「拔樹」場面은 이삭을 뽑는 「拔穀」 즉 農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곰이 아니라 虎가 人間創造主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檀君神話와는 反對이지만 夏의 禹王이 곰으로 化身해서 塗山氏의 딸과 結婚, 啓를 낳았다는 神話가 있어 中國에도 熊祖神話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漢族의 熊祖神話는 北方民族에서 들어 왔을 것이고 北方民族인 우리의 檀君神話에서는 虎가 아니고 곰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P·P·八二~八八).

그런데 그러면 (1) 武氏祠畫像石이 곧 檀君神話냐, 아니면 (2) 畫像石은 中國神話인데 檀君神話가 그것을 部分的으로 베낀 것이냐 하는 點이 重要な 問題인데 그 點을 金博士가 著書에서 明白히 못 박아 놓지 않아 앞서 얘기하다시피 一般에게는 「武梁祠畫像石이 곧 檀君神話」이며 따라서 이 畫像石은 山東地方까지도 古代韓民族文化圈이었던 事實에 대한 絶好的의 古考學資料인 것처럼 誤解 또는 速斷

되고 있다.

그러나 金博士가 著書속에서 「武梁祠堂畫像石의 神話를 충실히 기록하다시피 한 檀君神話」(P, 八八)라든가 「以上の 所論으로 檀君神話도 그 根幹은 道教의 神仙思想이지만 그 외에 殷代 혹은 周初의 青銅器에 나타나는 밤 혹은 어둠에서 光明과 生命이 솟아 나온다는 中國固有의 創世思想이 混入되어 있고 다시 그 외에 北方系의 샤아만敎의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一一四)고 結論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問題의 武梁祠第二石 第三石은 中國固有의 神話、創世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中國神話의 表現이며 그러한 中國神話속에서 虎를 熊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우리의 檀君神話라는 結論이 되는 것 같다. 即 거꾸로 말하면 우리



圖 3 武梁祠 後石室 第三石 第三段 熊虎國

의 檀君神話는 熊祖라는 우리 固有의 뼈대위에 中國神話의 살을 붙인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그 살 붙인 것이 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明白히 해둘 것은 武梁祠畫像石은 우리 檀君神話를 表現한 것이 아니라 漢族自身들의 神話表現이었던 것이며 이 點에 관해서는 金博士와 對話를 통해서 다시한번 確認하였다.

三

筆者는 金博士처럼 武梁祠畫像石이 中國人 自體의 神話의 繪畫化라고 믿고 있는 바이지만 이 小文에서 問題삼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말하다 시피 그중 核心이 되는 熊·虎場面이며 結論부터 말하면 그것은 人類創造가 아니라 虎가 女魃이라는 鬼神을 잡아먹는 것이고 곰은 亦是 惡鬼를 쫓는 蚩尤 또는 方相氏로서 이 世上에서 惡鬼를 몰아내는 中國在來의 所謂 大儺儀式場面이라는 것이다.

현재教授가 指摘한 靑銅器圖察의 創世說은 妥當性있는 理論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殷代 또는 西周初의 일이고 그 뒤에는 그러한 思想이 遺物이나 記錄에 一切 나오지 않고 또 殷靑銅器들과 武梁祠와의 年代差는 千年以上이나 된다. 萬一 그러한 創世神話가 漢代까지 남아 있었다라면 文獻의 나라 中國에서 한 귀절이라도 남아 있지 않을 理 없고 더구나 그런 怪異說話를 모은 山海經같은데에 一言半句 나타나지 않을 理가 없 는 것이다. 이것이 于先 武梁祠의 虎生人說의 根기 어려운 點이다.

後說하다 시피 이것은 虎가 女魃이라는 旱魃鬼神을 잡아먹는 場面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와 關連시켜서 먼저 곰의 正體를 알아 볼 必要가 있다.

이 武裝하고 춤추는 곰에 關해서는 金博士 著書의 再版附錄에 紹介되어 있듯이 中國의 劉忠恕나 日本의 水野清一은 이것을 蚩尤로 보았다② 蚩尤는 史記, 太平御覽 등 中國文獻에 依하면 五種의 武器를 만들어낸 獸身의 怪物이며 實地로 畫像石의 곰도 五種의 武器를 가지고 있어 이 곰의 蚩尤說은 妥當하다고 생각된다. 蚩尤는 史記나 山海經에 依하면

黃帝와 冀州에서 싸웠는데 蚩尤가 風伯·雨師의 도움을 받아 暴風雨로 몰아치자 黃帝는 女魃이라는 旱神(旱魃鬼神)을 보내 風雨를 멈추고 蚩尤를 죽였다고 되어있다. 이 五兵舞熊이 黃帝와 蚩尤의 戰鬪 場面이라고 본 것은 劉忠恕인데 그는 춤추는 곰은 窮勢에 몰린 蚩尤이고 그 앞의 小兒를 삼키려는 虎人은 八二名이나 된다는 그의 凶惡한 兄弟中の 하나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蚩尤는 좋아도 虎人의 解釋에는 無理가 있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 水野清一은 이 場面은 梁의 任昉의 述異記에 나오는 冀州 地方의 蚩尤戲로서 그것은 單純한 놀이가 아니라 逐鬼를 위한 民間行事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앞의 虎人에 대해서는 그것은 漢代에 流行한 婆猴技로서 拾遺記에 依하면 一種의 妖術로서 雲·火를 뿜기도 하고 갖가지 獸身으로 變하기도 하고 또 입에서 사람을 날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水野氏의 說은 매우 說得力있는 見解이지만 蚩尤戲는 몰라도 婆猴技가 왜 여기 神話속에 함께 나오는가 理解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곰은 逐鬼를 위한 蚩尤戲로 보아도 좋으나 虎人의 婆猴技說은 따르지 않고 이것은 後說하다 시피 虎吃(食) 女魃場面으로 蚩尤와 함께 逐疫·逐鬼의 儀式이라고 보는 것이다. 事實 金載元博士도 言及하고 있듯이 蚩尤는 方相氏와 通하며 그는 周禮에도 나오지만 後漢書 志 第五禮儀志中에는

「先臘一曰 大儺謂之逐疫 其儀(中畧) 方相氏 玄衣朱裳 執戈揚盾(中畧) 以逐惡鬼 于禁中」

이라고 나와 여기 五兵舞熊을 方相氏로 보아도 아무 無理가 없고 蚩尤 이전 方相氏 이전 要컨대는 逐妖怪儀式의 主人公인 것이다.

한편 女魃은 같은 後漢書 禮儀志의 注에 「耕父·女魃 皆旱鬼」라고 나오는 旱魃鬼神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비바람을 막아서 蚩尤를 죽인 鬼神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이 旱鬼이기 때문에 農耕民族에게는 根本的인 大敵이며 그것을 쫓아 없애는 것은 農耕民族인 漢族으로서는 生活바탕에 깔린 民族의 念願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갖가지 鬼神을 쫓



圖 4 河南省 唐河縣 漢 畫像石墓 虎吃女魃圖

는 것이 蚩尤(方相氏)요 또 百獸의 長인 호랑이라고 믿어진 것이다.
즉 같은 後漢書禮儀志의 亦是注에 依하면 「畫虎於門當食鬼也又虎
者陽物 百獸之長 能擊鷙牲 食魃魅者也」라고 되어 있어 漢代에는 虎는 女魃을
包含한 惡鬼를 삼켜 없애는 陽物로 믿어지고 있던 것이다.

一九七一年 河南省 唐河縣 針織廠에서 發見된 漢代 畫像石墓에는 두
호랑이가 땅에 넘어진 女子를 먹으려고 하는 場面(圖 四)이 있으며 報
告者들은 이것을 「虎吃女魃」光景으로 보고 있다③. 그런데 圖에서 모든
이 여기에도 二虎 사이에 춤추는 公子 한 마리 있는 것이다. 이 舞熊은
亦是 方相氏로서 虎들과 함께 惡鬼를 쫓는 存在로 登場하고 있다고 하
겠다. 이 그림을 虎의 人間創造場面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石墓에는 虎吃女魃場面이 이밖에도 또 두 개가 있으며 그
하나에서는 有翼虎가 女子를 땅에 때려눕히고 方今 먹으려 하고 있고
또 한 場面에서는 有翼虎가 역시 女魃을 땅에 쓰러뜨리고 먹으려 하고
있고 다른 세 마리 호랑이들은 女魃을 向해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다
고 說明되고 있다. 이 石墓畫像 內容중에는 이러한 虎吃女魃圖 以外에
伏羲女媧, 歷史故事, 生活圖, 樂舞百戲, 天文, 迷信, 神話圖 등이 있다
하며 그 主題는 大體로 武梁祠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山東省 沂南에서 發見된 또 하나의 漢代石墓에도 畫像들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三峯山위의 東王公, 西王母, 執兵熊形의 方相氏의 打鬼辟邪
即 大儼圖가 나오고 있다고 報告되어 있다④.

이렇게 漢代의 畫像石墓에는 大儼儀式場面이 重要한 主題로 登場하며
그것은 사람의 生活舞臺인 地上場面의 첫머리에 두어지는데 그것은 人
間社會의 安寧, 平和를 祈願하는 것으로 그 場面으로써 淨化된 平和鄉
을 象徵하는 것이라 하겠다.

四

以上에서 보듯이 畫像石의 核心이 되는 「人間創造」場面은 實은 蚩尤

또는 方相氏와 虎食女魃의 逐疫의 大儺場面이며 蚩尤는 이제 逐疫의 淨化神으로서 그리고 蚩尤를 한때 戰死케한 女魃은 農耕民인 漢族의 根本의 大敵이라는 惡鬼로서 胡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熊이나 虎나 모두 殷代의 創世神話와는 關係없이 逐疫의 淨化神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며 이 淨化場面이 武梁祠畫面에서 卽 天界와 地界의 境界가 되는 部分, 卽 地上界의 첫머리에 配置되어 있는 것은 人間의 居所地인 이 地上을 無病, 無鬼, 無天災의 平和郷으로 만드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硯敎授가 殷靑銅器에서 人間創造 思想을 發見한 것은 卓見이었다 하여도 그것과 千年以上 떨어져진 武梁祠의 虎人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가 武梁祠의 그 熊虎場面을 殷代의 傳統으로 본 것은 잘못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畫像石 內容과 檀君神話와의 또 하나의 決定的 差異는 檀君神話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神檀樹가 畫像石에는 없다는 事實이다.

그래서 管見으로는 道仙思想이 發達했던 高麗時代 또는 新羅末期에 中國의 畫像石 內容이 留學僧이나 使節團들에 依해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나라 在來의 民族祖로서의 檀君崇拜思想을 加味해서 三國遺事에서 보는 바와 같은 檀君神話로 整備·脚色된 것이며 그것은 아마 道敎界의 所爲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앞에서指摘했듯이 武梁祠의 畫像石은 漢族自體의 神話의 繪畫化이며 우리의 檀君神話와는 核心場面이 全혀 다른 것이고 그밖의 場面이 檀君神話의 다른 部分과 一致하는 것은 그런 部分을 우리쪽에서 따왔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한 部分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神檀樹下에 桓雄과 熊女가 있는 核心場面이 없는 限 檀君神話圖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註〉

① Hentze, C., *Objets Rituels, Croyances et Dieux de la Chine Antique et de l'Amérique Antwerp*, 1936.

② 劉忠恕「武梁祠後石室所見黃帝蚩尤戰圖考」中心文化研究彙刊 重慶一九四二。

水野清一「漢の蚩尤伎について、武氏祠畫像の解」

創立二十五周年紀念論文集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京都、一九五四。

③ 周到·李京華「唐河針織廠漢畫像石墓的發掘」文物 一九七三年 六期 P 三〇。

虎哈女魃圖 女魃赤上體 着裳 赤下肢 有卍發髻 伏于地 作掙禮狀 上有二虎 一熊 右虎生有雙翼 欲哈女魃 左虎張口前撲 一前瓜 踏住女魃右手 二虎之間 一熊作舞

④ 劉銘恕「關於沂南漢畫像」考古通訊 一九五五年 六期 P P、六五、六七

(一九八〇年五月十一日 서울大學校敎授)